

영광군, e-모빌리티 산업 강화 인력양성 온힘

연구센터 기업 현장견학 관련기업 취업기회 마련

영광군이 관내 영광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e-모빌리티 연구센터와 기업을 견학하며 인력 양성에 나섰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공고 e-모빌리티 학과가 대마 e-모빌리티 연구센터·기업 (대풍이브이자동차·에이치비) 등 e-모빌리티 산업 현장 견학했다.

이번 견학에서 학생들은 먼저 한국자동차연구원 e-모빌리티 연구센터를 방문해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의 한국 e-모빌리티 산업 현황 및 e-모빌리티 산업 소개 청취했다.

이후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

반구축, 초소형전기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개발 등의 국고사업으로 구축된 환경부 인증이 가능한 장비 시스템 및 주행 실증 트랙(PG) 등의 현장 시설을 방문했다.

동강대학교 계약학과(모빌리티·에너지)에서도 견학에 참석하여 일학습병행,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의 과정을 소개했다.

연구센터 방문 후 관내 농업용 전동운반차, 전기이륜차 생산 업체인 대풍이브이자동차와 에이치비를 방문하여 주력 제품 전시장 및 생산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모습을 견학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향후 관내 학교뿐 아니라 전남도 내 여러 학교에서 e-모빌리티 산업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자리를 마



영광공고 학생들이 19일 대마 e-모빌리티 연구센터·기업 산업 현장을 견학했다.

영광군 제공

련하여 양성된 e-모빌리티 전문 인력이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함평군, 지역농가 활로 모색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 공모에 선정돼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오는 2024년까지 20억원을 투입, 생산-저장-가공-유통 등 콩 재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립형 융복합 특화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콩 재배 전과정 기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계화 작업에 적합한 신품종(대찬·선풍·미풍 등)을 도입해 벼 대체 작목으로 육성한다.

올해 초부터 콩 기본교육을 실시해 논콩 우수 생산단지 노하우를 농가와 공유하고,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 컨설팅을 의뢰해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 9월 농진청 공모에 선정된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내년까지 20억원을 투입,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함평군 제공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모집 전남정보문화진흥원, 2개사

(재)전남정보문화진흥원(원장이 인용)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신규 입주기업을 내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집규모는 총 2개사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남 도내 문화콘텐츠 분야 예비창업 기업 및 올해 창업한 기업이면 된다.

입주기업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창업자 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평가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입주기업은 목포문화산업지원센터 내 기업 보육실을 비롯한 회의실, 컴퓨터 교육장 등의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 자금지원, 창업교육 등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진흥원 누리집(www.jci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7월3~7일 담당자 이메일(tjy@jcia.or.kr)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061-280-7499)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인용 원장은 “입주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아 역량강화와 지속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도내 예비창업 기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함평 돌머리해변 어촌뉴딜300 순조... 관광 활성화 기대

어촌마을의 생활기반을 개선하고 관광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함평군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돌머리지구 어촌뉴딜 300 사업이 공정을 80%를 보이고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해안 안전시설 확충, 돌머리 커뮤니티센터 신축, 귀어귀촌 빌리지 8개동 구축, 돌머리방앗간 운영, 해수풀장 정비, 돌머리·주포항 시설 및 경관 정비 등이다.

함평군은 오는 7월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기존 해수풀장, 갯벌탐방로 등 시설을 개선해 안전한 휴양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와 유황석을 활용해 맘을 빼며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돌머리 해양치유

(해수찜)센터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해수찜 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1122㎡ 규모로 건립하며 해수탕, 해수찜, 사우나, 카페 등 치유와 휴양을 위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은 “군민과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전남농기원 ‘나주 청양고추’ 일본 소비자 입맛 공략

8월말까지 매주 2톤씩 수출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지난 16일 나주 덕례영농조합 선별장에서 농식품수출 전문업체인 에스에스무역을 통해 나주산 청양고추 2톤을 일본에 수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출길에 오른 청양고추는 매운맛과 식감 등 품질이 우수해 국내 유통업체는 물론 일본 바이어 등 소비자들에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오는 8월 말까지 매주 2톤씩 수출할 계획이다.

청양고추 수출을 위해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신선농산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으로 과제류 선별기 지원, 일본 ID농가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수출규격품 생산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나주 덕례영농조합 선별장에서 나주산 청양고추 2톤을 일본에 수출했다.

도농기원 제공

종합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전문 수출업체 발굴을 통해 이룬 성과다.

덕례영농조합법인(대표 양관재)은 이번 수출 외 현재까지 청양고추 21톤, 애호박 2톤을 일본으로 수출했으며, 청양고

추는 15농가 12ha에서 재배되고 있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수출을 통해 국내 수급 안정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나주시, 나눔문화 활성화 동참 지역업체 대표 주민 참여

나눔문화 활성화를 선도하는 220인 나눔 리더에 나주시 각계각층 업체 대표, 주민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제1호 나눔 리더인 윤병태 시장에 이어 최근 나눔 리더 4~12호 가입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전남 사랑의 열매에서 추진 중인 나눔 리더는 나눔문화를 지역사회 리더들이 선도하고자 마련된 모금 사업이다.

지난 5월1일 시작해 오는 11월30일까지 릴레이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앞서 윤 시장에 이어 이상만 시의회의장, 강영구 부시장이 나눔리더 2, 3호로 가입했다.

나눔 리더는 연내 100만원의 기부금을 약정, 실천하게 된다.

모금된 기부금은 도내 생활취약계층,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영광 법성포단오제 열린다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일일

2023 영광법성포단오제가 22~25일 ‘단오, 만사형통!’을 주제로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일원에서 열린다.

영광법성포단오제는 매년 음력 단오를 전후로 개최되며 5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행사다. 2012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대한민국 대표 축제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2023 영광법성포단오제는 용왕제·선유놀이·당산제·산신제 등 전통 민속·제천행사를 비롯해 숲쟁이전국국악경연대회·법성포단오제씨름왕 대회·법성포 단오가요제·민속놀이경연대회·전국 팔씨름 대회·드론 라이트쇼 및 각종 체험과 축하공연까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광=김도윤 기자

이사회 구성 임원 공개 모집 담양군문화재단, 7월4일부터

(재)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이병노)은 제6대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원은 9명으로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선임직 이사 7명과 재단 운영과 업무를 감사할 감사 2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양성 참여 촉진을 위해 취약성별을 30% 이상 선별할 예정이다.

응모자격은 문화예술·관광·교육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된 단체 활동 경력을 가진 자, 중앙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며, 학력 및 전공분야 제한은 없다.

재단은 지난 5월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후보자 모집을 위한 세부 요건 등을 정하였으며 후보자 심사를 거쳐 모집인원의 2배수 이상을 이사장에게 추천하면 이사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지원서는 (재)담양군문화재단, 담양군청,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7월4~6일, (재)담양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061-383-8241)로 문의.

조진용 기자